

논문 16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정숙* · 황여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의 중학교 3학년 3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계 전체 고등학생들의 직업결정에는 성별, 가정 내에서의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탐색 활동, 학교 내 상담 경험, 적성에 대한 인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고등학생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직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탐색 활동과 본인의 적성에 대한 인지에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자아개념이 강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학교에서 진로상담 경험이 있으며, 본인의 적성을 인지하고 있을수록 직업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성별에 따라 진로지도 방안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1. 서론

개인이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는가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생활양식 및 삶의 방향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진로결정은 본인의 적성에 대한 파악과 직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진로탐색과 진로선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에는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 풍토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업성적과 진학, 진로 등의 문제로 고민하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고 있으며, 진로결정에 자신감이 없고 뚜렷한 목적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환, 2001).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고민거리는 진로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재창, 2002). 이러한 상황은 최근 보도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청소년의 46%가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모르고 있고, 대학생의 25%는 진로를 잘못 선택해 재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일보, 2006). 또 다른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대학생 중 절반만이 자신의 전공 선택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66%의 학생들은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답하였다(세계일보, 2005). 이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결정이 충분한 사전 정보와 탐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내적동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부족한 정보와 확신에 근거해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으로 이행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가지지 못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적성 불일치 등에 따라 첫 일자리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차후의 직업경로를 통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개인차원에서도 상당한 비효율을 발생시키지만,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차후 보다 나은 진로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주목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 특히 직업심리학 영역에서는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Leong and Chervinko, 1996; 이기학·김명원, 1998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개인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며,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수많은 변인들(자아개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 혹은 애착, 가정 내 진로교육,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성취 등)가운데, 특정 변인에만 집중하여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종합적인 논의를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직업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해 구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 직후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진로결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직업 준비수준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직업결정이 진로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진로결정의 개념 및 이론들, 그리고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그런 연후에 직업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의 개념과 이론

진로결정(career decision)이란 진로지도의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신의 직업가치관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일컫는다.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을 현재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 설정을 의미한다고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또는 졸업 후에 자신이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을 의미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는 한 집단 내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되었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관해 비교적 초기에 수행된 연구들은 개인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진로미결정을 주축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진로결정수준이라는 용어로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상태를 이해하고자 한다(Callanan and Greenhaus, 1992; Wanberg and Muchinsky, 1992; 안권순·한건환, 2002에서 재인용).

진로결정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직업심리학 분야에서 태동하였다. 직업심리학은 개인의 진로의식의 발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어린 시절의 가정 경험, 자아 개념, 인성 발달, 심리적 욕구나 동기의 실현 등을 중시하였으며, 더불어 개인적 요인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편 사회심리학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 등 유의미한 타자의 영향을 위시한 외부환경과 개인 간 상호작용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개인과 주위 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과 그 결과로 개인의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임용수, 1992).

이에 비해 사회학적 접근은 좀 더 거시적인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ollingshead(1949)와 Miller와 Form(1951)은 사회계층이 직업계획, 직업가능성, 계획에 관한 확신감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계층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이들 요인에 대해 낮은 결정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사회계층은 사람들의 사회적 반응, 교육수준, 직업포부 등을 결정하는 독특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지도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영향력, 학업성취도, 지역사회, 압력집단, 역할지각 등 제반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해서 알맞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충기, 1991).

상술한 바와 같이,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은 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하여, 진로결정에 관한 기제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2) 진로결정 관련 변인

진로결정은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인 직업선택까지 계

속되는 복잡한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의 과정에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내적·외적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진로결정에 관한 제반 요인들을 크게 개인 특성 변인, 가정 배경 변인, 경제 의식 관련 변인, 진로지도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가. 개인 특성 변인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개인 특성 변인들에는 성별, 학업성취, 자아정체감, 교육포부 수준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성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김현옥, 1989; 송영숙, 1997; 이현림·천미숙, 2004), 반대로 남학생이 더 높다는 결과(조아미, 2002)도 있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Crites, 1973; 김관용, 1996; 김대연·강경찬, 1996)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여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은데, 이에 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진로결정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혹은 성숙수준이 조기에 발달하게 되고, 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현실적이어서 직업세계에 대한 계획이나 관심이 빠르게 발달한다는 견해가 있다(김현옥, 1989).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기학·한종철(1997)은 전체적인 진로태도성숙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만, 준비성 및 현실성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고 결정성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다고 하였다.

학업성취와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양자 간의 정적 관계를 지지하고 있지만,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의 진로발달도가 높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먼저 Nicolas와 Banducci(1974), Lawrence와 Brown(1976), 김원선(1989), 김현옥(1989)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나 지적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일수록 진로 관련 개념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Nicolas와 Banducci(1974)에 의하면 학업성적이 높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하위직업보다 상위직업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반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상위직업보다 하위직업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김관용(1996)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학업성취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인지수준이 더 높게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그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오히려 진학보다는 실업계로 진학해서 가계에 빨리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높은 진로성숙수준을 견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자아정체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진로결정과 정적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자아정체감은 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나 결정수준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예언요인이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자신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 및 낮은 확신성은 저조한 정체감으로 이어져 결국 진로미결정 및 정보부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Gordon, 1981; Salomone, 1982; Gianakos, 2001).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가운데 이억범·김연희(2004), 김민배·문승태(2004), 유영미·문승태(2005)의 연구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한편 자아정체감은 진로에 대해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유영미·문승태(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부모지지, 친구지지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이 같은 사회적지지 변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정체감은 그 자체로도 직접적인 결정요인이지만, 동시에 다른 변인들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교육포부수준은 그들의 직업포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는 개인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위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을 갖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직업포부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의 교육포부수준이 직업포부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경숙, 1983; 홍영란, 1983; 최영준, 1990). 즉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은 학생들이 높은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을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포부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직업포부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개인이 진로결정 및 진로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가정 배경 변인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가정 배경 변인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거주지 변인 등이 있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이 많다(Lucas, 1993; Luzzo, 1993; 김환식·류창열, 1993; 차재권, 1998). SES가 자녀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에 대해 차재권(1998)은 사회적 위신이 높은 직업을 가진 보호자는 자녀들이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진로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문승태·김연희(2005)에 따르면, SES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못지않게 부모와의 애착이나 자아정체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SES와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도출된 연구들도 상당히 많다(Goodale and Hall, 1976; 김관용, 1996; 김원중, 1984; 이승국, 1999; 정운경,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일찍부터 직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SES가 양호한 학생들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김관용, 1996)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well과 동료학자들이 제시한 지위획득의 사회심리적 모형, 즉 Wisconsin 모형에서는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유의미한 타자의 영향이 개인의 교육성취

와 직업성취에 중요한 변인으로 소개된 바 있다. 특히 부모의 자녀교육 및 자녀직업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교육성취와 직업성취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과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며, 이것이 자녀의 교육포부 및 직업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ewell et al., 1969, 1970).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부모들일수록 자녀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 또한 학생의 진로결정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주지 변인은 거주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웃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 교육에 대한 포부수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거주지역 변인이 교육포부 및 직업선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ewell, 1964; Sewell and Orenstein, 1965). 특히 Sewell과 Orenstein(1965)에 따르면,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지위의 직업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일수록 다양한 직업을 보고 접하며, 동시에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경제 의식

경제 침체 등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시기나 진로선택의 내용은 경기가 호황인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경제적 위기가 가족과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김광웅(1998)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역경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지려는 동기를 갖게 하며,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류진아, 1999에서 재인용). IMF 이후 청소년들의 사회경제 의식과 소비행태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직업 요건으로 보수보다는 사회적 위신과 안전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다(이순형, 1998; 류진아, 1999에서 재인용). 또한 청년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고학력자의 구직행태를 조사한 유은정(2003)은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에 대한 부담과 불안으로 성급한 입직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하향취업을 하며, 진로기대를 수정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꾀한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한 사회의 경제적 여건과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따라, 진로선택 및 직업포부 수준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직업선택과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독립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에 의미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의식이 강한 청소년들일수록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offman(1984)은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개념화하고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는 부모의 믿음과 가치와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태도적 독립, 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불신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갈등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승인 욕구와 정서적 지지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정서적 독립, 부모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의 문제와 개인 신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능적 독립이 포함된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를 고찰한 국내의 연구들에 따르면,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대학생들은 부정적인 진로정체감을 갖게 되며(장지선, 2003),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주, 1993). 그러나 심리적 독립과 진로미결정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Blustein et al., 1991),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간에 일치된 결과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진로 지도

진로지도는 진로교육의 하위개념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 또는 적성진단 및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도를 의미한다(김충기, 1995). 진로지도는 각 개인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며, 직업선택 이후에는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하고 발전해 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정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는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진로지도는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를 갖게 하고, 자기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의식 능력을 증진시키며,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임은미, 2003). 국내에서 이루어진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들의 직업태도와 직업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강중화, 2004; 임은미, 2003; 김옥희, 2003).

3. 연구방법

1) 데이터와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데이터 가운데 중3패널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각 2,000명씩 총 6,000명의 학생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장기간 추적·조사함으로써 청년층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3패널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므로 이들의 응답 당시 학년은 고교 2학년에 해당된다. KEEP 자료에서 중3패널 학생은 총 2,000명이지만 고교 진학 단계에서 일반계 고교로 1,292명이 진학하였고, 3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가운데 1,275명이 조사대상자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계 고교로 진학하여 3차년도 조사

까지 응한 1,275명을 1차로 선정하고, 그 가운데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에 모두 충실하게 응답한 1,00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주요 배경변인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분포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492	49.0
	여학생	513	51.0
거주지 규모	서울	202	20.1
	대도시	295	29.4
	중소도시	337	33.5
	읍면지역	171	17.0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	284	28.3
	201~300만원	291	29.0
	301~400만원	211	21.0
	400만원 이상	219	21.8
아버지 학력수준	중졸 이하	134	13.4
	고졸	516	51.3
	전문대 및 일반대졸	318	31.7
	대학원 이상	37	3.7
어머니 학력수준	중졸 이하	191	19.0
	고졸	636	63.3
	전문대 및 일반대졸	161	16.0
	대학원 이상	17	1.7
남성 보호자 직업수준	상위 정신노동직	177	17.6
	하위 정신노동직	199	19.8
	상위 육체노동직	189	18.8
	하위 육체노동직	440	43.8
합 계		1,005	100.0

2) 변인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희망직업 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보다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인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이며, 결정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의 값이 부여되었다. 독립변인에는 학생 개인의 기본 특성 및 가정배경을 포착하는 성별(GENDER), 내신성적(GRADE), 자아개념(SELFRECOG),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EDUASPIR), 아버지 학력(FAEDU), 어머니 학력(MOEDU), 가정의 월평균 소득(INCOME), 남성보호자의 직업(MJOB),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PRTASPI), 거주지(REGION)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학생의 성별은 더미변인으로 여학생이면 0, 남학생이면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학교성적은 고1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①1등급(4%이하), ②2등급(4%초과~11%이하), ③3등급(11%초과~23%이하), ④4등급(23%초과~40%이하), ⑤5등급(40%초과~60%이하), ⑥6등급(60%초과~77%이하), ⑦7등급(77%초과~89%이하), ⑧8등급(89%초과~96%이하), ⑨9등급(96%초과)의 9단계로 구분된 것을, 변인 값이 클수록 좋은 성적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자아개념은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3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합산하여, 최소값 3~최대값 5의 분포를 갖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는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석사, 박사로 조사된 것을 전문대학(2~3년제 대학) 이하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4년제 대학과 대학원(석사·박사)에 대해 더미변인으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원래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로 분류하여 조사되었던 것을 미취학·무학 0, 초졸 6, 중졸 9, 고졸 12, 2·3년제 대졸 14.5, 4년제 대졸 16, 석사 18, 박사 21의 값을 부여한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가계소득은 지난 1년간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조사한 값을 사용하되, 편포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로그(natural log)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남성보호자의 직업 또한 본래 9단계로 세분하여 조사되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를 4단계로 재분류하여 상위정신노동직(고위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하위정신노동직(일반 기술직 및 사무직), 상위육체노동직(판매직 및 서비스직), 하위육체노동직(생산직 및 기능직)으로 나누어, 하위육체노동직을 준거집단으로 한 더미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거주지 규모 변인은 서울, 광역시, 시지역, 읍·면지역으로 조사된 것을, 읍·면지역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더미변인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의 경제 의식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항에 대해 ①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②대학 졸업 때까지, ③직장을 구할 때까지, ④결혼할 때까지, ⑤평생의 5단계로 구분된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변인 값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업에 대한 심각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에 대해 ①매우 심각하다~⑤매우 양호하다는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변인 값이 증가할수록 실업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및 학교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변인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가정의 진로지도는 삶의 방식, 적성 및 흥미, 직업·학교·학과에 대해 각각 가정 내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진로정보 탐색 역시 평소에 가정 내에서 직업·학교·학과에 대해 정보찾기를 한 경

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의 진로지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성검사,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적성인지여부 역시 적성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1, 모른다고 답한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상술한 변인들로 구성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계량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사용된 변인의 정의 및 평균, 표준편차는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GENDER] + \beta_2[GRADE] + \beta_3[SELFRECOG] + \beta_4[EDUASPIR1] + \beta_5[EDUASPIR2] + \beta_6[FAEDU] + \beta_7[MOEDU] + \beta_8[INCOME] + \beta_9[MJOB1] + \beta_{10}[MJOB2] + \beta_{11}[MJOB3] + \beta_{12}[PRTASPI1] + \beta_{13}[PRTASPI2] + \beta_{14}[REGION1] + \beta_{15}[REGION2] + \beta_{16}[REGION3] + \beta_{17}[PRTDEPEND] + \beta_{18}[UNEMPLOY] + \beta_{19}[DIALOGUE1] + \beta_{20}[DIALOGUE2] + \beta_{21}[DIALOGUE3] + \beta_{22}[JOBINFO] + \beta_{23}[APTITUDE1] + \beta_{24}[APTITUDE2] + \beta_{25}[APTRECOG] + e$$

<표 2>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인의 정의 및 평균, 표준편차

변수	정 의	평균	표준편차
GENDER	더미변수; 남학생인 경우=1	0.489	0.500
GRADE	학교 내신 성적	5.964(전체) 5.902(남) 6.023(여)	1.528(전체) 1.588(남) 1.468(여)
SELFRECOG	자아개념(자아개념 관련 3개 문항의 합산치)	9.676 9.658 9.964	1.805 1.803 1.808
EDUASPIR1	더미변인; 학생 자신의 교육포부(4년제 대학=1)	.742 .743 .740	.437 .436 .438
EDUASPIR2	더미변인; 학생 자신의 교육포부(대학원 진학=1)	.149 .160 .138	.356 .367 .345
FAEDU	아버지 학력(교육연한)	12.848 13.006 12.697	2.764 2.783 2.740
MOEDU	어머니 학력(교육연한)	11.962 11.922 12.000	2.431 2.298 2.553
INCOME	가정의 월평균 소득(natural log)	5.655 5.673 5.638	.750 .731 .768
MJOB1	더미변인; 남성보호자의 직업(상위정신노동직=1)	.176 .174 .177	.381 .380 .382
MJOB2	더미변인; 남성보호자의 직업(하위정신노동직=1)	.198 .215 .181	.398 .411 .385
MJOB3	더미변인; 남성보호자의 직업(상위육체노동직=1)	.188 .191 .185	.390 .393 .388
PRTASPI1	더미변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4년제 대학=1)	.627 .607	.483 .488

변수	정 의	평균	표준편차
		.647	.478
PRTASPI2	더미변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대학원=1)	.330	.470
		.347	.476
		.313	.464
REGION1	더미변인; 거주지 규모(서울=1)	.201	.400
		.243	.429
		.159	.366
REGION2	더미변인; 거주지 규모(광역시=1)	.293	.455
		.302	.459
		.284	.451
REGION3	더미변인; 거주지 규모(중소도시=1)	.335	.472
		.335	.472
		.335	.472
PRTDEPEND	부모에 대한 의존도(5점 척도)	1.730	.694
		1.703	.682
		1.756	.705
UNEMPLOY	실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수준(5점 척도)	1.732	.703
		1.748	.717
		1.756	.705
DIALOGUE1	더미변인; 삶의 방식에 대해 가정 내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1)	.767	.422
		.750	.433
		.783	.412
DIALOGUE2	더미변인; 적성 및 흥미에 대해 가정 내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1)	.782	.413
		.731	.443
		.830	.375
DIALOGUE3	더미변인; 직업·학교·학과에 대해 가정 내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1)	.843	.363
		.819	.385
		.867	.339
JOBINFO	더미변인; 직업·학교·학과에 대해 가정 내에서 탐색활동을 하는 경우(=1)	.561	.496
		.518	.500
		.602	.489
APTITUDE1	더미변인; 학교에서 적성 관련 검사를 받은 경우(=1)	.807	.394
		.774	.418
		.838	.368
APTITUDE2	더미변인; 학교에서 진로상담을 받은 경우(=1)	.397	.489
		.357	.479
		.434	.496
APTRECOG	더미변인; 자신의 적성을 알고 있는지 여부(=1)	.630	.482
		.603	.489
		.656	.475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인 학생의 진로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속변인이 이분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해당 요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개인의 기본적 특성 및 가정배경, 경제의식, 그리고 가정과 학교의 진로지도 등이 희망직업 결정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표본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앞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한 모형으로 다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4. 분석 및 연구결과

1) 전체 학생 대상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희망직업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형 I에서는 성별, 학업성취, 자아개념, 교육포부 수준과 같은 개인 특성 변인과 부모의 학력, 가계 소득, 남성보호자의 직업, 부모의 자녀교육에 기대수준, 거주지와 같은 가정 배경 변인, 부모에 대한 의존도와 실업문제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경제의식 관련 변인,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관련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성별, 가정 내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탐색 활동 및 적성에 대한 인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직업을 결정할 확률이 .662배(=exp(.413)) 가량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직업 세계에 대한 계획이나 관심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현옥, 1989; 송영숙, 1997; 이현림·천미숙, 2004)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3>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직업결정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인	전체 학생(I)		남학생(II)		여학생(III)	
	B	Exp(B)	B	Exp(B)	B	Exp(B)
상 수	-2.216 (.881)	.109	-1.120 (1.238)	.326	-3.607 (1.394)	.027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 변인						
성별(남학생)	-.413** (.152)	.662	-	-	-	-
내신 성적	.027 (.054)	1.027	.037 (.074)	1.037	.007 (.083)	1.007
자아개념	.062 (.044)	1.064	.014 (.061)	1.014	.140* (.067)	1.151
본인의 교육포부(4년제)	-.061 (.258)	.941	.118 (.390)	1.125	-.369 (.364)	.692
본인의 교육포부(대학원)	.554 (.344)	1.741	.616 (.497)	1.851	.413 (.523)	1.511
아버지 학력	-.011 (.041)	.989	-.027 (.058)	.974	.006 (.063)	1.006
어머니 학력	.010 (.044)	1.010	.012 (.065)	1.012	.024 (.063)	1.024
가계소득	.022 (.109)	1.023	-.225 (.168)	.798	.239 (.168)	1.270
남성보호자 직업(상위정신)	-.137 (.250)	.872	-.203 (.343)	.816	-.087 (.396)	.917
남성보호자 직업(하위정신)	-.235 (.218)	.790	-.135 (.307)	.874	-.484 (.327)	.616
남성보호자 직업(상위육체)	-.060 (.216)	.942	-.075 (.296)	.928	-.193 (.331)	.824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4년제)	.383 (.389)	1.466	.929 (.544)	2.531	-.132 (.610)	.876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대학원)	.256 (.415)	1.292	.926 (.579)	2.525	-.441 (.652)	.644
거주지 규모(서울)	.370 (.258)	1.447	-.008 (.380)	.992	.653 (.387)	1.921
거주지 규모(광역시)	.352	1.422	-.057	.944	.584	1.793

변인	전체 학생(I)		남학생(II)		여학생(III)	
	B	Exp(B)	B	Exp(B)	B	Exp(B)
	(.229)		(.358)		(.317)	
거주지 규모(중소도시)	.234 (.223)	1.264	-.267 (.356)	.766	.553 (.305)	1.739
경제의식 관련 변인						
부모에 대한 의존도	-.194 (.108)	.824	-.091 (.155)	.913	-.340* (.159)	.712
실업문제에 대한 인식	-.136 (.107)	.873	-.073 (.145)	.930	-.214 (.166)	.807
진로지도 관련 변인						
(가정)삶의 방식에 대한 대화	.076 (.197)	1.079	.165 (.272)	1.179	-.013 (.299)	.987
(가정)적성·흥미에 대한 대화	-.044 (.207)	.957	-.027 (.269)	.973	-.135 (.345)	.873
(가정)직업·학교·학과에 대한 대화	.376 (.236)	1.456	.399 (.317)	1.490	.557 (.375)	1.745
(가정)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탐색 활동	.479** (.163)	1.614	.593** (.226)	1.810	.329 (.246)	1.389
(학교)적성관련 검사 경험	-.115 (.191)	.892	-.155 (.254)	.856	-.156 (.299)	.855
(학교)진로상담 경험	.345** (.155)	1.412	.051 (.224)	1.052	.684** (.231)	1.982
적성에 대한 인지	1.828*** (.160)	6.221	1.591*** (.222)	4.906	2.129*** (.244)	8.410
N	1,005		492		513	
-2log Likelihood	1109.426		570.219		514.815	
Model Chi-square	273.632		111.805***		174.710	
Nagelkerke R ²	.319		.271		.390	
Overall percentage correct	73.1		70.7		77.0	

한편 가정 배경 변인들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직업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종속변인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직업선택 여부이며, 직업의 위계를 측정하는 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배경요인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지 않다.

진로지도 관련 변인 가운데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탐색 활동이 직업결정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탐색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직업을 결정을 확률이 1.614배(=exp(.479)) 가량 높았다. 또한 학교 내 진로상담을 경험했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조기에 직업을 결정할 확률이 약 1.4배(=exp(.1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및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지도가 직업의식을 증진시키거나,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직업을 결정할 확률이 무려 6.221배(=exp(1.828))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진로결정 및 직업결정에 얼마나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인지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원활하게 하

며, 궁극적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획득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남학생 및 여학생 비교

다음으로 표본집단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직업세계는 남성중심적 특성을 지녀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직업가치, 직업포부 등 직업과 연관된 제 측면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성별에 따라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직업결정 기제도 상이하리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직업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성적이나 자아개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거주지, 그리고 경제의식 관련 변인들은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남학생에게서 직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주로 진로지도와 관련된 변인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탐색 활동과 본인의 적성에 대한 인지여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가정 내에서 자녀의 미래 진로와 관련하여 함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의논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기에 미래 직업을 결정할 확률을 약 1.8배(=exp(.593)) 가량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성에 대한 인지여부는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서 본인의 적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업결정 확률을 무려 4.906배(=exp(1.591))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된 학교 내 진로상담 경험 여부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 따라서 뒤이어 논의되겠지만 진로상담의 효과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표출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대화나 상담과 같은 진로지도 방법보다는 직접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 위주의 접근법이 보다 유효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남학생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생 개인의 특성을 포착하는 변인들 가운데 전체 학생 및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검증되지 못했던 ‘자아개념’이 학생들의 직업결정에 도움을 주는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학생들이 고교 시절에 미리 자신의 미래 직업상을 결정하는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아개념 변인은 5점 척도의 3문항을 합산해서 최소값 3~최대값 15의 값을 갖도록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점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석의 편의를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계수를 토대로 다시 재계산해보면, 자아개념 수준이 여학생들의 평균치보다 1표준편차 정도 높은 수준이라면 직업을 결정할 확률이 1.286배, 2표준편차 정도 높은 수준이라면 1.655배, 그리고 3표준편차가량 높은 수준이라면 약 2.129배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05)의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 결과로 거주지 변인이 있다. 여학생의 경우, 거주지 변인은 유의수준의 경계에 걸쳐 있었는데,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이 모두 정적(positive)인 방향성을 나타냈다. 이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물론, 남학생의 경우 거주지 변인에 대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유의수준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모두 부적(negative)으로 나타낸 데 비해 여학생은 통계적인 유의성 기준에 매우 근접하면서도 정적인 방향성을 보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 직하다.

상술한 결과가 유발된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비교적 빨리 자신의 직업상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주변 환경의 영향에 더 민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을 마치면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진다. 또한 학생들이 희망 직업으로 생각할만한 직종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적 직업이거나, 남성들이 지배적 비율을 차지해왔던 직종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인지도도 높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직업의 종류와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거주지 규모와 같은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그 양상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며,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 역시 남성에 비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자체가 일종의 과도기, 변화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직업결정에서도 남학생보다 외부 영향에 보다 민감할 수 있고, 그만큼 가변성도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주위에서 보다 다양한 직종을 접하고 또 그에 따른 역할 모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시지역 여학생들은 그만큼 직업획득과 관련하여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결정할 확률도 높아지는 반면, 도시 지역에 비해 다양한 직종을 접하거나 여성직업인으로서의 역할모델을 쉽게 찾기 힘든 읍면지역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 진출을 희망하면서도 구체적인 직업결정에는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개연성이 본 연구결과에 감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점은 전체 학생 및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직업결정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은 향후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직업결정 여부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직업획득에 대한 의지나 절박함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진로결정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진로지도 관련 변인들 가운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상담을 받은 여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희망직업을 결정하여 미래의 직업상을 가질 확률이 약 2배(=exp(.684))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학생에 대한 분석에서는 진로상담은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정보탐색 활동이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상담이나 대화를 통한 방법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상담과 같은 접근법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적성인지 여부는 전체 학생 및 남학생, 여학생에 대한 분석에서 모두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도출되어,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5. 결론

한국사회의 과도한 입시중심의 교육이나 고등교육 진학의 보편화 경향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의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적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직업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학생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진로지도는 여전히 학교교육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에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반계 전체 학생들의 직업결정에는 성별, 가정 내에서의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탐색 활동, 학교 내 진로상담 경험 여부, 적성에 대한 인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직업관련 정보탐색 및 상담 경험이 있을수록, 또한 본인의 적성에 대해 인지할수록 직업을 결정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서, 따라서 향후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해 볼만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직업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의미한 변인들이 그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자아개념이 강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학교에서 진로상담 경험이 있으며, 본인의 적성을 인지한 여학생일수록 직업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여학생들에게는 자아개념이나 부모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직업결정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여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에서 자신감 및 독립성을 길러주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중화. 200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학년별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민일보. 2006. 4. 20. “미래의 직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5&article_id=0000242507 에서 2006. 6. 8일 인출.
- 김경숙. 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관용. 1996. “중학생의 개인 및 가정 특성이 직업적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광웅. 1998. “경제위기와 아동.” 『IMF 관리체제에서의 아동·청소년 생활변화와의 적응』. 1998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대연·강경찬. 1996. “고교생의 진로성숙·진로포부 결정요인 탐색.” 홍익대학교 교육연구, 12, 5-42.
- 김민배·문승태.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7(1), 92-10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봉환. 2001. “상담전공자의 진로 및 직업개발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2(2), 263-277.
- 김옥희. 2003. “진로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141-153.
- 김원선. 1989. “진로의식성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상업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원중. 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충기. 1991. “진로발달이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학술지, 35, 367-395.
- 김충기. 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양서원.
- 김현옥. 1989. “청소년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환식·류창열. 1993.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그에 관한 요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8(2), 102-105.
- 류진아. 1999. “아버지의 실직경험 유무와 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직업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문승태·김연희. 2005.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1-16.
- 박찬주. 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세계일보. 2005. 12. 14. 1학년·06학번 신입생, “고민의 계절...”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35982에서

2006. 6. 8일 인출.
- 송영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안권순·한건환. 2002. “청년기의 개인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20.
- 유영미·문승태. 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8(2), 1-19.
- 유은정. 2003. “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고학력자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기학·한종철. 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정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35-349.
- 이기학·김명원. 1998.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9, 277-298.
- 이순형. 1998. “IMF 시대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의식과 소비행태.” 『IMF 관리체제에서의 아동·청소년 생활변화와의 적응』. 1998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승국. 1999. “중등학생의 진로성숙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재창. 2002.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문음사.
- 이억범·김연희. 2004. “대학생의 다중지능, 학교환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간의 인과관계.” 교수논문집, 8, 271-301.
- 이현림·남혜경.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요인분석.”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53-82.
- 임용수. 1992.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 모형 : LISREL 모형 탐색.” 한국교육, 19, 111-132.
- 임은미. 2003. “진로성숙도 증진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진로교육연구, 16(2), 191-204.
- 장지선. 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윤경.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49-292.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차재권. 1998.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영준. 1990. “농촌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인과관계모형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9(1), 115-130.
- 홍영란. 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Blustein, D.L., M.M. Walbridge, M. L. Friedlander, and D. E. Palladino.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Callana, G.A. and J.H. Greenhaus.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231.
- Crites. J.O. 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CA: McGraw-Hill.
- Crites, J.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Gianakos, I. 2001. Predi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101-114.
- Goodale, J.G. and D.T. Hall. 1976. Inheriting a career: The influences of sex, values, and par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 19-30.
- Gordon, V.N. 1998. Career decidedness type: A literature review.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4), 386-403.
- Hoffman, J.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Leong, F.T. S. Chervinko.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3), 315-329.
- Lowrence, W. and D. Brown. 1976. An investigation of intelligence, self-concept,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sex as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43-52.
- Lucas, M.S. 1993. Personal, social, academic and career problems expressed by minor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1, 2-13.
- Luzzo, D.A. 1993. Predicting the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 A comparison of personal,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71-275.
- Miller, D.C. and W.H. Form. 1951. *Industrial sociology*. New York: Harper and Brother.
- Salomone, P.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ewell, W.H. 1964. Community of residence and college pl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9(1), 24-38.
- Sewell, W.H. and Orenstein, A. M. 1965. Community of residence and occupational choi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2), 551-563.
- Sewell, W.H., A.O. Haller and A. Portes.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1), 82-92.
- Sewell, W. H., A. O. Haller and G.W. Ohlendorf. 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6), 1014-1027.
- Wanberg, C.R. and P.M. Muchinsky.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actors which influence job decision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using the 3rd wave of KEEP(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data. The researchers find that the variables such as sex, job(schools, departments) exploring activities, experience of career counseling in school, and recognition of self aptitud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job decisions. Also, the difference of job decision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re analyzed. The male students' job decisions are affected by job(schools, departments) exploring activities, and recognition of self aptitude. However, in female students' case, self concepts, dependency on their parents, experience of career counseling in school, and recognition of self aptitude exert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job decisions. This results address the importance of career guidance and imply that career guidance strategies should be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